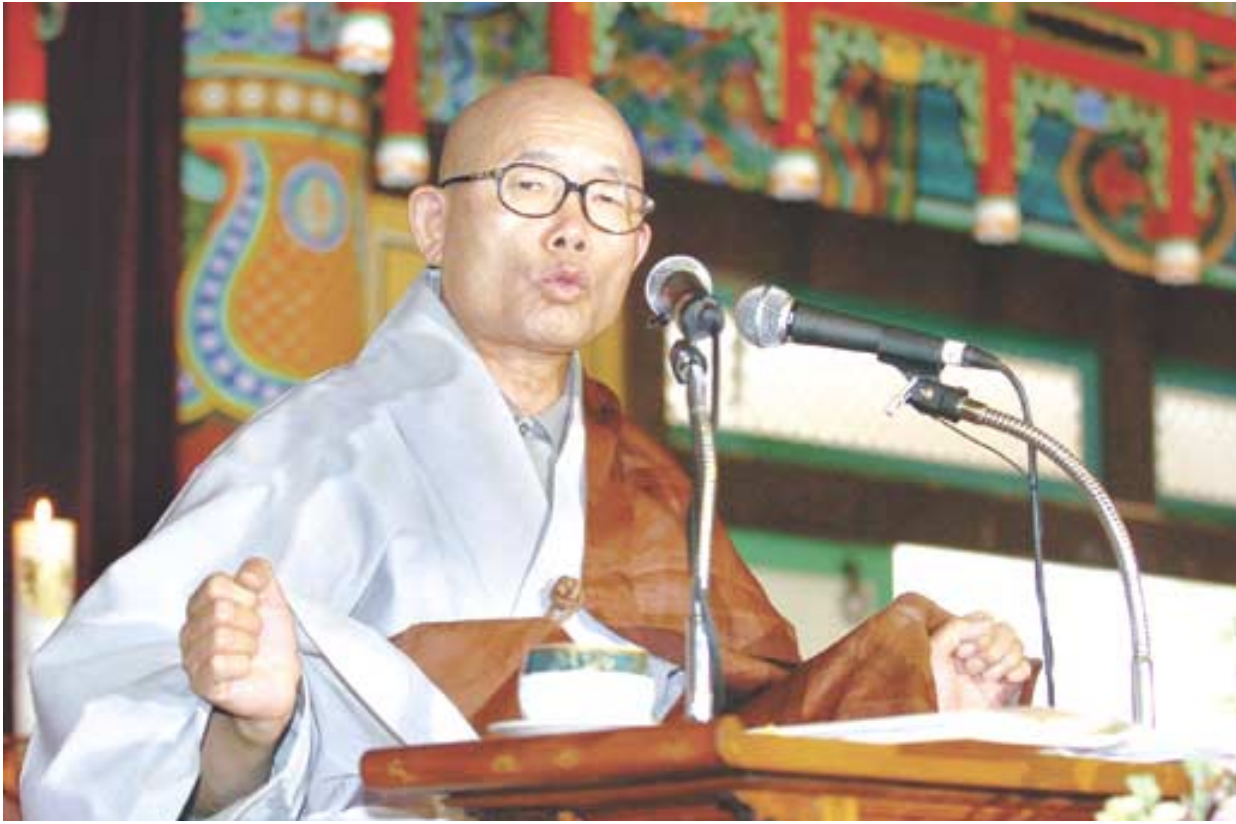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3  
혜남 스님(통도사 을주 前 강주) / 화엄경(9월 30일)



혜남 스님은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대원, 대비, 대지를 일으켜야 보현보살의 원력을 원만성취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 법회의 주제인 <화엄경>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경전의 성립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중생들도 부처님께 몇 마디 법문을 듣고 열심히 수행하면 해탈을 얻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제자들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슬픔을 이기지 못해 괴로워하는데, 늦게 출가한 한 늙은 비구가 나서 '잔소리꾼 부처님이 죽었으니 우리에게 자유가 왔다'고 망동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가섭이 한탄하여 부처님의 말씀에 '결집(結集)'할 뜻을 품게 된 것이 불교경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 열반 후 왕사성 절영굴에서 500명의 비구가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다문제일 아난은 가섭에 의해 결집장에서 쫓겨납니다. 깨닫지 못한 이가 아라한들이 모인 결집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아난이 대분심을 일으켜 7일을 옹맹 정진, 도를 얻어 결집장에 나타납니다. 이때 이미 가섭은 아난이 깨달음을 얻을 것을 알고 아난이 앓을 법자를 마련합니다. 아난은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법문을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었다(如是我聞)'라며 법문을 엮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독송하는 <금강경>

의 '여시아문 일시 불 재사위국기수급과 독원 여대비구중 천이백오십인구(如是我聞一時佛在舍衛祇樹給孤獨園與大比丘衆千二百五十人俱)은 때와 장소 등장인물을 밝히는 6성취(成就)의 서문으로 바른 믿음을 성취케 하는 법문임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6성취란 것은 첫째, 신(信)성취이니 '이와 같은 법문'이란 뜻을 가진 '여시(如是)'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문(聞)성취이니 내가 들었다는, 아문(俄聞)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위에서 설명한 '이와 같은 법문을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었다(如是我聞)'라는 부분이 믿음(信)과 들음(聞)의 두 가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時)성취이니 일시(一時)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넷째, 주(主)성취이니 경전을 설한 불(佛)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경전을 설한 신 장소(處)를 나타낸 처(處)성취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금강경>에서는, 재사위국(在舍衛國)을 말합니다. 여섯째, 중(衆)성취는 누가 법문을 들었는지를 밝히는 여대비구중 천이백오십인구(與大比丘衆 千二百五十人俱)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이 <화엄경>은 다른 경전과 달리 경전을 직접 설법하는 '설주(說主)'와 가르침의 주인이 되는 '교주(敎主)'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대개의 경전처럼 부처님이 직접 설한 내용을 기록한 경이 아니라, 타자의 입장에서 부처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칭찬하는 경전이라는 것입니다. 화엄경 39품 중에서 부처님이 설주로 등장하는 것은 오직 2품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문수·보현보살 등 수많은 설주들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빌어 가르침을 펴고 있습니다.

<화엄경>의 설명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화엄경>의 정행품(淨行品)에 나오는 대승불교의 이타적 정신에서 중생제도를 서원하는 삼귀의례를 올릴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귀의불 당원중생 소승불중(제대대도) 발무상의(自歸依佛 當願衆生 紹隆佛種(體解大道)發無上意)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 하옵나니 마땅히 중생들이 삼보의 종을 이어받아(은 도를 체득하여 일어서) 위없는 아록다라삼삼삼보 리심을 발하게 하옵소서.

자귀의법 당원중생 심입경장 지혜여해(自歸依法 當願衆生 深入經藏 智慧如海) 스스로 가르침에 귀의 하옵나니 마땅히 중생들이 깊이 경장(經藏)에 들어가 지혜가 바다와 같게 하옵소서.

자귀의승 당원중생 통리대중 일체무애

# 바로 믿고 알고 행해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되자

(自歸依僧 當願衆生 統理大眾 一切無碍) 스스로 승가에 귀의 하옵나니 마땅히 중생들이 대중을 통리하여 일체 경계에 걸림이 없게 하옵소서.

<화엄경>의 갖추어진 이름은 <대방광불 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이라고 하는데 '대'는 온 우주 법계를 모두 다 덮을 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방'은 법답고 바르다.

'광'은 끝없이 넓다. '불(佛)'은 위에서 설명한 대방광(大方廣)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어 '화'는 아름다운 연꽃보다 더 좋은 사람의 보살만행 꽃을 상징합니다. '엄'은 당연히 보살만행을 장엄하는 것입니다. '경(經)'이란 것은 '대방광불화엄'의 도리를 언어와 문자에 실어서 먼 지방과

대승경전이라고 하지만 이때는 십지품의 별행본인 <십지경(十地經)>이 단편적으로 유행하던 경전입니다. 그 시기는 아마 1세기 혹은 2세기 경에 성립된 것으로 추리됩니다. 이 <십지경>은 입법계품과 함께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법본으로 된 원본이 남아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화엄경>의 원본(宛本)은 불타발타라가 418-420년 사이에 번역한 60권본과 실차난타가 695-699년 사이에 번역한 80권본인데 모두 입법계품(入法界品)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입법계품 하나를 확대하여 놓는 것이 반야삼장이 796년부터 798년 사이에 번역한 40권본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제40권은 60권본이나 80권본에 없는 부분이 추

진 것이 발견되었는지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교판사적 교리체계의 분석이 시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교판사적 시각에서는 부처님이 성도 후 21일 동안 자신의 깨달음을 바를 있는 그대로 설한 경전이 <화엄경>이고 이것을 중생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경전인 <아함경>부터 시작하여 점점 차원이 깊은 경전으로 법문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불교의 거장인 천태지자대사의 교판이라고 불리는 천태오시교(天台五時教)의 내용에 맞추어 설명하면 먼저 알기 쉬운 <아함경>을 12년간 설하여 중생의 근기가 조금 수습하여지자 대승경전인 <유마경> <승만경> <능가경> 등 <방등부>경전을 8년, <반야경>은 21년간 설하여 큰 법문을 들을 정도로 근기가 수습하여지자 일승(一乘)도리인 <법화경>을 8년간 설하여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본래의 뜻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로 <열반경>을 하룻밤에 설하여 계율을 잘 지키고 상락(常樂我淨)의 열반도리를 설했다고 분류합니다.

또 가산대사(嘉祥大師) 김장(吉藏)은 <화엄경>을 근본법륜(根本法輪), 나머지 경전을 지말법륜(枝末法輪), 마지막 <법화경>을 설말귀본법륜(攝末歸本法輪)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설한 일체경전의 근본이 <화엄경>이고 그 외의 나머지 경전은 모두 '지말(枝末)'이며 <법화경>이 지말을 거두어서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였다는 것은 '화엄의 도리로 돌아가게 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화엄경>의 교학적 지위는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화엄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 없이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찰진심념가수지(剌塵心念可數知) 대해중수가음진(大海中水可飲盡)

## 보현행원품 실행은 최고 수행법 큰 원·큰 자비심·큰 지혜 구하고 바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후세에까지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줄여 <화엄경>이라 말합니다.

이 <화엄경>에는 유식과 연기, 여래장상사상 등 온갖 불교의 사상은 물론 동서고금의 모든 사상이 전부 다 들어 있다는 뜻으로 <잡화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보현행원품의 열 가지 행원은 신도님들에게도 가장 좋은 수행법으로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보현행원품을 중심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 경전의 핵심 내용은 뭐냐.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행해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되자'는 것입니다. 바로 믿어야, 바른 이해가 생기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경전 성립사적으로는 초기

가되어 있음으로 이것을 별행본 <보현행원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학술적 추정과는 달리 고대 중국 불교의 특색인 교판사적(교리의 체계적 흐름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갈래 짓는 일)으로 볼 때는 <화엄경>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다음에 1주일 혹은 2주일 동안 스스로 성도의 기쁨을 즐기다가 2주일 혹은 3주일째에 자신이 미망(迷妄)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은 내용인 있는 그대로 설법하신 경전이라고 합니다.

교판의 성립배경은 중국 남북조시대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소·대승불교가 함께 번에 밀려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이 부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설법이고 여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머리에 똑똑!!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있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초·중·고·대학생·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六券 90,000원  
明光文化院 www.mkmunhwa.com

- 본사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292-9 / 전화 043)222-2257  
- 서울영업소 : 서울 종로구 당주동 145번지(롯데미도파 광화문빌딩 204호) 전화 02)720-0826

- ◇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과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 ◇ 충청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 ◇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문에 속 한맹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 ◇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 ◇ 이원종 전 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 ◇ 김중호 전 내무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범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